

2012. 3. 5 제282호

#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세계도시동향

2012. 3. 5 제282호

## 문화·디자인

(토막기사) 유적지 관리 업무를 돕는 명예 시민관리위원 임명 (베를린市)

## 산업·경제

1. 지역화폐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영국 브리스틀市)

## 건강·복지

2.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도쿄都)

(토막기사) 어린이집 아동보호 수칙 강화안 발표 (뉴욕市)

(토막기사) 노인요양소의 수용가능 인원 및 입소대기자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일본 사이타마縣)

## 방재·안전

(토막기사) 전철 및 버스 정류장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 범죄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추진 (미국 미네아폴리스市)

(토막기사) 제설작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도 입양 사업' 추진 (미국 시카고市)

---

## 도시교통

3. 전기자전거 대여서비스 추진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도시계획·주택

4. 외곽지역 재생을 위해 첨단 예술작품 활용 (런던市)
5. 대규모 주택단지 재생지침 수립 (도쿄都)

## 부록 : 2012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1. 뉴욕市 /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2. 시카고市 / 람 이매뉴얼 시장
  3. 런던市 / 보리스 존슨 시장
  4. 파리市 / 베르트랑 들라노에 시장
  5. 베를린市 /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시장
  6. 도쿄都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지사
  7. 상하이市 / 한정(韓正) 시장
-

## 문화 · 디자인

### 유적지 관리 업무를 돕는 명예 시민관리위원 임명 (베를린市)

- 베를린市 문화재청은 지역 유적지 보호를 위해 15명의 명예 시민관리위원을 새로 임명함. 이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2016년까지 市 문화재청의 유적지 보호 업무를 돕게 됨. 미래세대가 市의 역사적 유산을 꾸준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적지의 의미와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시민 의식과 참여가 중요함.
  - 市는 발굴 유적지 2058개와 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200여 개 등 풍부한 고고학적 유산을 가진 도시임. 유적지 보호를 위해 市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명예 시민관리위원을 임명해 활동을 독려하고 있음. 1992년에는 각 자치구의 유적지 관리 담당자와 수많은 명예 시민관리위원이 함께 베를린 고고학협회를 창설하였고, 2008년부터 베를린 문화재상을 제정해 매년 문화재 관리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시상하고 있음.
  - 이번에 임명된 15명의 명예 시민관리위원은 각 자치구의 유적지 관리부서에 나가 그곳의 업무를 돕게 됨. 특히 새로 발견된 유적지의 상태를 관찰해 이를 자치구와 市에 보고한 뒤 유적지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됨. 직접적인 발굴작업은 할 수 없음. 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어떠한 수당이나 경비도 받지 않음.
- 명예 시민관리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신청한 후 최소 3년간 문화재청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협조자로서 신뢰를 획득해야 하며,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문화재 관리 교육에 참여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함.
  - 2011년 市 문화재청은 강연, 실습, 발굴, 유적지 시찰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재 관리 교육을 12회 실시함. 참가자들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베를린의 역사와 지형을 이해하고, 유적지 보호활동에 대한 법률지식을 습득하며, 현장에 나가 스케치·측정·유적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배움.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202/nachricht4584.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202/nachricht4584.html))

([www.stadtentwicklung.berlin.de/denkmal/denkmalpflege\\_vor\\_ort/de/bodendenkmalpfleger/ausbildung\\_aufgaben.s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denkmal/denkmalpflege_vor_ort/de/bodendenkmalpfleger/ausbildung_aufgaben.shtml))

## 산 업 · 경 제

### 1. 지역화폐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영국 브리스틀市)

○ 영국 브리스틀市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도입되어 2012년 5월부터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 결제에도 쓰일 예정임. 경기불황으로 움츠려든 지역 상권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상점과 도·소매상이 힘을 모아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市와 신용협동조합이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역화폐인 ‘브리스틀 파운드’가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함.

- 최근 유럽 경제위기로 인한 유로화의 불안과 미국 달러가치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아 물가는 오르면서 영국 파운드 가치는 떨어지는 등 2중 3중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경제위기를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는 지역 상권이 경기부양을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로 나선 것임. 그동안 영국에서 지역화폐가 도입된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브리스틀의 경우처럼 市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화폐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대도시를 거점으로 한 대기업들이 지역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런던 등 다른 곳에서 지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브리스틀 지역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지역화폐가 이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2년 2월 현재 브리스틀 내 100여 개 회사가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로 동의함. 동네 빵집, 지역 문화시설(극장과 영화관), 유람선, 커피전문점 등이 주를 이룸.
- 브리스틀 파운드는 파운드화와 같은 가치를 지니며 1, 5, 10, 20파운드 지폐가 발행됨. 실질적인 지역화폐 관리와 유통은 브리스틀 신용협동조합에서 담당함. 브리스틀 신탁에 통장을 개설한 시민은 통장에 예치된 파운드의 가치만큼 지역화폐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음. 브리스틀 신탁은 정부기관(한국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원금을 최대 8만 5000파운드(약 1억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임.
- 市는 지역화폐 사업을 녹색자본 조성사업으로 선정해 초기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지역화폐의 용도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선하는 등 지역화폐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음.
  - 市는 브리스틀 파운드 웹사이트를 통해 화폐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왔음. 화폐 위조를 막기 위해 은빛 홀로그램과 일련번호가 들어간 금색 호일 선을 넣음.



【브리스틀 지역화폐】

- 영국에서 도입된 지역화폐 중에서 브리스틀 화폐는 지방정부의 든든한 지원 하에 온라인 banking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가장 큰 규모로 활용될 예정임.

([www.bbc.co.uk/news/uk-england-bristol-16852326](http://www.bbc.co.uk/news/uk-england-bristol-16852326))

([www.bristolpound.org/](http://www.bristolpound.org/))

## 건 강 · 복 지

### 2.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도쿄都)

- 도쿄都 복지보건국에서는 복지 및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기본방침으로 수립된 ‘복지·건강도시 도쿄비전’(2006. 2)을 근거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12년 2월 8일 급속한 고령화 및 도쿄 직하지진의 가능성 등 여러 여건 변화를 고려해 분야별 사업전개 방향을 제시한 ‘도쿄 복지보건의 신(新)전개 2012’를 수립함.

- 이 계획에서는 8개 분야(육아가정, 고령자, 장애인, 생활복지, 보건,

의료, 건강안전, 횡단적인 조치)에 대해 27개 중점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의료시설 내진화,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자가발전설비 정비, 재해 발생 시 반드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8개 분야별 목표 및 주요 시책】**

8개 분야	목표	주요 시책
육아가정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육아가정 종합센터 정비(2012년도 개설 예정)
고령자	고령자가 건강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사회	방문간호 스테이션 설치 촉진 사업
장애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의 안심생활 지원 3개년 계획
생활복지	도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조치 추진	저소득층 및 취업곤란자 대책
보건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건강 만들기 지원	지역 암 등록 실시(2012년 7월 예정)
의료	누구라도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 받을 수 있는 체제 정비	도쿄都 재해의료협의회 설치
건강안전	다양한 건강위험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켜냄	건강안전연구센터 재편(2012년도 개설 예정)
횡단적인 조치	광역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복지보건 기초자치단체(구시정촌) 포괄 보조사업

○ 이와 관련해 都는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도민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장애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2012년 4월부터 3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도쿄都 장애인계획’과 ‘제3기 도쿄都 장애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2012년 2월 14일 ‘도쿄都 장애인 시책 추진위원회’는 이들 계획이 ① 지역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구조 만들기, ② 사회생활이 가능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③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④ 무장애화 사회 실현, ⑤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 및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장애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실천과제】**

기본방향	주요 실천과제
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구조 만들기	- 서비스제공 체제 정비 - 상담지원 체제 정비, 장애 특성에 맞는 대응 - 복지시설 입소자의 지역생활로의 이행 지원 -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지역생활로의 이행 지원 - 재해 발생 시 장애인 지원
② 사회생활이 가능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아 지원 내실화 - 아동 및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 추진 -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내실화
③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일반 취업을 위한 지원의 내실화 및 강화 - 복지시설의 취업 지원 내실화 및 강화
④ 무장애화 사회 실현	- 종합적인 표준디자인의 보급을 통한 복지마을 만들기 추진 - 마음의 무장애화 추진
⑤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 및 확보	- 중증 심신장애아 시설의 간호사 확보 - 서비스 질의 유지 및 향상

([www.fukushihoken.metro.tokyo.jp/kiban/shisaku/12shintenkai/index.html](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iban/shisaku/12shintenkai/index.html))

([www.fukushihoken.metro.tokyo.jp/kiban/shisaku/12shintenkai/files/shintenkai02.pdf](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iban/shisaku/12shintenkai/files/shintenkai02.pdf))

([www.fukushihoken.metro.tokyo.jp/kiban/shisaku/12shintenkai/files/shintenkai01.pdf](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kiban/shisaku/12shintenkai/files/shintenkai01.pdf))

([www.metro.tokyo.jp/INET/KONDAN/2012/02/40m2e100.htm](http://www.metro.tokyo.jp/INET/KONDAN/2012/02/40m2e100.htm))

([www.metro.tokyo.jp/INET/KONDAN/2012/02/DATA/40m2e100.pdf](http://www.metro.tokyo.jp/INET/KONDAN/2012/02/DATA/40m2e100.pdf))

### 어린이집 아동보호 수칙 강화안 발표 (뉴욕시)

- 미국 뉴욕시는 관내 어린이집(Day Care Center)의 어린이 보호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선안을 발표함. 시 보건국은 2012년 2월 22일 시 보건위원회에 데이케어센터 운영 개선안을 제출함. 시는 2011년 스타튼 아일랜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직원은 아이들이 수면을 취할 때 15분마다 호흡과 건강상태 등을 점검해 기록을 남겨야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응급상황 대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www.nbcnewyork.com/news/local/I-Team-Baby-Death-Jeremy-Davila-Staten-Island-Day-Care-Changes.html](http://www.nbcnewyork.com/news/local/I-Team-Baby-Death-Jeremy-Davila-Staten-Island-Day-Care-Changes.html))

([www.nyc.gov](http://www.nyc.gov))

### 노인요양소의 수용가능 인원 및 입소대기자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일본 사이타마縣)

- 일본 사이타마縣 고령개호과는 특별 노인요양소 및 개호노인 보건시설로부터 수용가능 인원 및 입소대기자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이 시스템은 특별 노인요양소 및 개호노인 보건시설별 개설자(운영주체), 시설 기본정보, 정원, 대기자 수, 비어 있는 침상 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각 시설에 대한 기본정보는 縣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호서비스 정보 공표 시스템'과 연동해 제공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특성과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 이 정보는 각 노인요양시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제공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에 대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음. 縣 고령개호과가 매주 월요일 일괄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함.

([www.pref.saitama.lg.jp/site/koreisya-nyukyo/2-jyouthouteikyoku22.html](http://www.pref.saitama.lg.jp/site/koreisya-nyukyo/2-jyouthouteikyoku22.html))

([www.kohyo-saitama.net/kaigosip/BackTop.do](http://www.kohyo-saitama.net/kaigosip/BackTop.do))

## 방 재 · 안 전

### 전철 및 버스 정류장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 범죄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추진 (미국 미네아폴리스市)

-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市 도시교통국은 경전철 정류장 근처에 노숙자나 말썽꾸러기 10대 청소년이 모여 시끄럽게 하거나 승객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베토벤 등의 클래식 음악을 틀고 있음. 市는 정류장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말썽꾼들이 클래식 음악이 싫어 그곳을 떠나거나 그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류장에 클래식 음악을 틀 곳은 포틀랜드로, 정류장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캠페인의 일환이었음. 그런데 미네아폴리스의 한 경전철 정류장이 특이하게 2층으로 된 막힌 공간으로 건설되다 보니 노숙자나 10대 문제 청소년의 근거지가 되면서 기물파손이나 난동과 같은 범죄가 종종 일어나 주민들의 불평이 높았음. 급기야 2011년 4월에는 청년 2명이 칼에 찔리는 강력사건이 일어남.
- 이에 市 도시교통국은 2011년 여름에 클래식 음악방송 외에도 감시카메라와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야간시간대에 순찰도 확대함. 도시교통국은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 등의 곡을 150달러어치(약 16만 원) 구매해서 기존 방송설비를 이용해 음악을 내보냄.
- 클래식 음악만으로는 절도나 강력범죄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고, 클래식 애호가 일부는 클래식 음악을 10대 문제아를 쫓는 데 이용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 이에 대해 클래식 음악방송을 실시 중인 포틀랜드 경찰국에서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함.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18~25세 청소년이 일으키는데, 이들 대부분은 클래식 음악을 싫어한다고 밝힘. 실제로 클래식 음악방송이 시작되면 정류장에 모인 청소년이 그곳을 떠났다고 함.

- 미네아폴리스市에 따르면 그 정류장이나 주변 지역의 주민 민원이 클래식 음악방송을 시작한 2011년 여름 즈음에는 감소했지만 2011년 연말에는 지역 주민의 불만이 다시 늘어남. 그럼에도 市는 이 프로그램을 다른 버스 정류장과 밤 시간대에 10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주차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www.startribune.com/local/minneapolis/138615169.html](http://www.startribune.com/local/minneapolis/138615169.html))

### 제설작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도 입양 사업’ 추진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보도 제설작업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책임감을 고양하기 위해 보도 입양(Adopt-A-Sidewalk) 사업을 추진함. 도로 입양(Adopt-A-Road) 사업이 쓰레기 투기가 잦고 관리가 소홀한 도로를 일정기간 입양해 쓰레기 수거와 제초 작업 및 화단 조성 등의 정화활동을 펼치는 사업인 데 반해 보도 입양 사업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 책임구간을 정하고 제설에 필요한 도구를 공동이용하는 사업임. 이는 시민이 제설할 공간을 스스로 정하는 자원봉사 활동임. 市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www. ChicagoShovels.org](http://www.ChicagoShovels.org))를 개설해 제설작업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시민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해 제설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자세한 지역 날씨 및 제설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자신의 집 앞 눈을 치워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음.
- 이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집 앞 보도를 선택하거나 다른 지역의 보도를 클릭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경찰이 노인이나 장애인 거주지의 제설작업을 담당했으나 이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참가 시민들은 지역 필요물품 공동이용 사이트([www.OhSoWe.com](http://www.OhSoWe.com))에서 지역기업이 지원하는 제설도구를 공동활용할 수 있음.

([www.cityofchicago.org/content/city/en/depts/mayor/press\\_room/press\\_releases/2012/february\\_2012/mayor\\_emanuel\\_launchesadopt-a-sidewalkcitywideshovelinginitiativ.html](http://www.cityofchicago.org/content/city/en/depts/mayor/press_room/press_releases/2012/february_2012/mayor_emanuel_launchesadopt-a-sidewalkcitywideshovelinginitiativ.html))

([www.youtube.com/watch?v=tef80jyGQgc](http://www.youtube.com/watch?v=tef80jyGQgc))

## 도 시 교 통

### 3. 전기자전거 대여서비스 추진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전기자전거 대여서비스를 2012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市는 카 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와 협력해 그 업체 회원을 대상으로 45대의 전기자전거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함. 2013년에는 전기자전거 45대를 더 추가할 계획임.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로부터 일부 재정보조를 받음.

- 市는 전기자전거 대여료를 자동차 대여료의 절반 이하로 책정하고, 이용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임.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버클리 연구소에서 전기자전거 대여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평가를 파악한 뒤 자가용을 전기자전거로 대체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볼 계획임.

-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적음. 일반 자전거보다 힘을 들이지 않고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언덕길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으며, 페달을 밟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 땀을 덜 흘리게 되는 장점이 있음.

- 市와 버클리 연구소는,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주민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때 드는 비용 때문에 자동차를 필요할 때만 대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는 것에 비추어 어느 시점에서는 자동차보다 대여료가 싸고 주차 걱정도 훨씬 덜게 되는 자전거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함.

([www.good.is/post/san-francisco-will-pioneer-electric-bike-sharing/](http://www.good.is/post/san-francisco-will-pioneer-electric-bike-sharing/))

([www.planetizen.com/node/54407](http://www.planetizen.com/node/54407))

### 4. 외곽지역 재생을 위해 첨단 예술작품 활용 (런던市)

○ 런던市는 도시 외곽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한 런던외곽기금(Outer London Fund)의 지원을 받아 런던 서부 브렌트포드 하이스트리트(Brentford High Street)에 첨단 예술작품을 전시함.

- 런던시장은 브렌트포드 하이스트리트에 위치한 워터맨즈 센터에 첨단 기술과 예술이 만난 레이저광선 작품을 설치하는 행사에 최근 참가함. 2012년 세계 디지털 예술축제에 초대된 작품 'GEOMETRY'는 프랑스 예술가의 작품으로, 어두운 하늘 위로 쏘아올린 레이저광선 조각작품임. 이 작품은 도심과 떨어진 외곽지역인 서부 런던에 새로운 문화의 기운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됨.

· 브렌트포드 지역에 설치된 레이저 작품은 수마일 밖에서도 눈에 띄어 서부 런던을 상징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市는 경기불황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도심지역, 특히 외곽지역의 거리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데 힘이 되는 예술 작품 설치와 거리 살리기 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힘.



【워터맨즈 센터에 전시된 레이저광선 작품】

- 市는 런던외곽기금 중 127만 5000파운드(약 22억 6700만원)를 2011년 말 브렌트포드 하이스트리트가 있는 하운즐로우區에 지원해 중심가 살리기에 투입하도록 함. 이 중 26만 5000파운드(약 4억 7000만원)는 크리스마스 전등과 트리 장식 등 거리 미화와 상가의 간판 교체에 사용됨.
  - 2012년 1월에는 중심가의 광장과 상점가의 인도를 연결하고 도보 여행 경로 표지판 설치 및 지도 제작, 자전거 관련 시설 개선, 문화시설 설치 등에 추가 예산이 투입됨. 외곽지역인 하운즐로우區는 히드로 국제공항에 가까운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市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부도심 재생에 주력하고 있음.
  
- 市는 2011년 6월 런던외곽기금을 조성해 향후 3년간 외곽지역의 중심가를 활성화하고 재생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런던외곽기금은 市, 런던개발청, Design for London, 런던교통공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자치구를 지원하는 기금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심가 관할 자치구가 지역의 독특한 개성과 우수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 5000만 파운드(약 889억 원)를 지원함.
  - 지원방안은 2단계로 이루어짐. 1차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중심상가를 장식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1000만 파운드(약 178억 원)를 20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2차는 2012년 1월 1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3200만 파운드(약 569억 원)를 지원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boris-switches-laser-sculpture-brentford](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boris-switches-laser-sculpture-brentford))

([www.hounslowchronicle.co.uk/west-london-news/local-hounslow-news/2012/02/07/laser-light-sculpture-good-for-brentford-says-boris-109642-30285044/](http://www.hounslowchronicle.co.uk/west-london-news/local-hounslow-news/2012/02/07/laser-light-sculpture-good-for-brentford-says-boris-109642-30285044/))

## 5. 대규모 주택단지 재생지침 수립 (도쿄都)

○ 도쿄都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해 고도 성장기에 건설된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의 노후화와 주민의 고령화 등 대표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주택단지 재생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약 8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2년 2월 17일 ‘다마뉴타운 등 대규모 주택단지 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① 다양한 세대가 모여드는 활기찬 마을, ② 지역 특성을 살린 쾌적한 마을, ③ 풍요로운 도시환경과 안전을 갖춘 마을이라는 재생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매력 있는 마을(지역 브랜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생을 위한 검토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총 4개의 분야(마을 만들기, 주거기능, 생활서비스, 커뮤니티)에 대해 5개 주제(고령화 대응, 젊은 세대 유치, 안전 및 안심 확보, 환경 및 에너지절약 대책, 새로운 매력 및 활력 창출)를 분석·검토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메뉴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각 주택단지의 재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주민, 공공의 도시재생기구(우리의 토지주택공사에 해당), 都 주택공급공사(우리의 SH공사에 해당), 지역사회단체, 都 및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마을 만들기의 중심이 되는 자치단체 및 주민, 관련 단체가 각자 정해진 기본 역할에 따라 협의해나가는 검토회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주택단지 재생을 위한 주요 검토내용】**

구분	세대(世代)별 대응		양호한 생활환경		새로운 매력·활력 창출
	고령화 대응	젊은 세대 유치	안전 및 안심 확보	환경 및 에너지절약 대책	
도시 기반 마을 만들기의 바람직한 방향	① 마을 구조 검토 ② 인프라 유지 및 갱신과 무장애화 ③ 방재성을 향상시키는 마을 만들기 ④ 저탄소 마을 만들기 ⑤ 녹지나 오픈스페이스 등의 유지 및 활용				
주거기능의 바람직한 방향	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주택 갱신 ② 주택재고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③ 누구라도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만들기 ④ 방재성 확보 등을 통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고려한 주택 만들기				
생활서비스 기능의 바람직한 방향	① 근린센터 활용을 통한 활력 창출 ② 고령자 및 육아세대 등의 생활서비스 확충 ③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주변 지역의 비즈니스 창출 ④ 쇼핑 및 배식 등 생활서비스 확충 ⑤ 고령자 등이 자신의 지혜 및 경험을 살릴 기회를 제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의 바람직한 방향	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 및 연계 확충 ②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방재대책 강화 ③ 고령자 및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공조시스템 구축 ④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⑤ 지역문화 계승 및 전파시스템 구축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2/20m2h2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2/DATA/20m2h200.pdf)

## 2012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

1. 뉴욕市 /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2. 시카고市 / 람 이매뉴얼 시장
  3. 런던市 / 보리스 존슨 시장
  4. 파리市 / 베르트랑 들라노에 시장
  5. 베를린市 /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시장
  6. 도쿄都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지사
  7. 상하이市 / 한정(韓正) 시장
-

## 1. 뉴욕市 /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 2012년 뉴욕市를 ‘혁신의 수도’로 선언하고 이를 위해 교육, 경제, 도시 정부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함.

-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
  - 대출 받은 학자금 상환 지원: 우수한 교사를 영입하기 위해 대학 졸업자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교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대출 받은 학자금을 차등해 상환해 줌.
  - 공립학교 교사의 급여 차등 지급: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교사를 선발해 급여를 차등 지급함.
  - 교사 재배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우수한 교사를 배치함.
  - 우수 공립학교 신설: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여러 평가기준상 일정 수준 이하의 학교는 폐교하고 우수 학교를 신설함.
  - 취업 준비 지원: 고교 이상의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교육을 강화해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함.
  - 민간교육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 실시: 민간기관과 연계해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함.
  - 장학금 제도 강화: 도시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를 강화해 우수한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경제부문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
  - 영화 및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산업을 장려함.
  - 고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5개 區를 대상으로 브롱크스는 소매, 스탠튼 아일랜드는 신규 주택단지 조성, 롱아일랜드는 제트블루 항

공사 본사 유치, 퀸스는 맨해튼 서부 확장, 브루클린은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함.

-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함. 특히 외국인이 편하게 여행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
  - 특히 구인·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Workforce One Career Center’를 열고 창업을 지원하며, 특히 외국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국가유공자에게는 임대료 및 구직을 지원하고, 청년세대에게는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최저임금도 인상함.
- 도시정부 분야의 혁신을 추진함.
- 공원 : AT&T 통신사와 협력해 도시공원 내 Wi-Fi를 지원함.
  - 공공안전 : 병원 응급실과 앰블런스 간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구축함.
  - 데이터 분석 : 도시정보분석팀에서는 빈곤 및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신규 건설사업 : 건물 등을 새로 지을 때 절차는 간소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도록 함.
  - 교통안전 : 시속 30km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을 2배로 늘림.
  - 재활용 :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비율을 2배로 늘림.
  - 청정에너지 : 미국 내에서 하수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고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사업도 추진함.
  - 대기오염의 최소화

○ 이에 덧붙여 블룸버그 시장은 2012년 1월 1일 ‘WINS News’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약속함.

- 2011년은 범죄와 화재, 교통사고 등의 재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임을 증명함. 2012년에도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뉴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상과제임.
  - 최근 10년간 뉴욕의 범죄율은 34% 감소함. 이 배경에는 경찰, 소방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 2012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국과 소방국에 대한 투자와 개혁을 지속할 것임.
-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뉴욕 시민 역시 생애주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市 보건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뉴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수명은 80.6세로 예상됨. 이는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도 3년 이상 늘어났고, 미국 전체 평균보다 2년 반 이상 늘어난 수치임.
  - 성인들 역시 미국 전체 평균과 비교해 평균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현재 40세인 뉴욕 시민의 평균수명이 82세로 예측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평균에 비해 2년이 깊.
  - 이처럼 뉴욕이 다른 도시보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배경에는 공중보건(Public Health)과 공중안전(Public Safety)이라는 두 축이 있었기 때문임. 2012년에도 공중보건과 공중안전망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 주력할 계획임.

([www.mikebloomberg.com/index.cfm?objectid=D3A094B8-C29C-7CA2-F970B6BCE8EAD151](http://www.mikebloomberg.com/index.cfm?objectid=D3A094B8-C29C-7CA2-F970B6BCE8EAD151))

([www.nytimes.com/2012/01/13/nyregion/in-state-of-the-city-speech-bloo](http://www.nytimes.com/2012/01/13/nyregion/in-state-of-the-city-speech-bloo))

mberg-focuses-on-schools.html?\_r=1)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  
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  
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2a%2Fpr001  
-12.html&cc=unused1978&rc=1194&ndi=1)

## 2. 시카고市 / 램 이매뉴얼 시장

- 한 세대 전만 해도 시카고市는 저물어 가는 도시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의 시카고市는 어느 시대, 어느 도시보다 변화의 중심에 있음.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市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음과 같은 어젠다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함. 첫째 교육의 질 제고, 둘째 지역 안전 향상, 셋째 효율적인 정부 실현,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임.
- 교육에 대한 현재의 정책은 20~30년 후의 시카고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됨. 지금의 교육현실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적은 수업시간과 수업일수를 기록하고 있고, 학생의 반 이상이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업시간과 수업일수를 늘리고 교사의 임용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우수하고 교육열이 충만한 교원을 확보해야 함. 또한 공교육과 함께 가정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
-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에 대해 모든 시민이 분노해야 하며 市는 적극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

해 경찰당국과 학부모, 학교당국이 서로 협력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

- 현재의 재정상황으로는 市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해 市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 단순히 사업 시행·미시행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市에 정말 필요한 일인지, 가치가 있는 일인지, 市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인지를 따져보고 사업 시행을 결정해야 함.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는 재정난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통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함.
- 기업을 경영하기에 적합하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함. 市는 지난 10년간 2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으나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들도록 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함.
- 시카고市는 140년 전 대화재로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 재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다시 일어섰던 저력이 있는 도시임. 다시 한 번 시민들이 힘을 합쳐 시카고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때임.

([www.cityofchicago.org/content/city/en/depts/mayor/press\\_room/major\\_speeches/2011/may/mayor\\_rahm\\_emanuelsinauguraladdress.html](http://www.cityofchicago.org/content/city/en/depts/mayor/press_room/major_speeches/2011/may/mayor_rahm_emanuelsinauguraladdress.html))

### 3. 런던市 / 보리스 존슨 시장

○ 최근 5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골자로 하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신문 구독, 실행되지 않는 건축 관련 컨설팅 등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문화를 없앨 계획임.

- 크게 교통투자, 치안과 범죄, 방재, 市 조직, 올림픽, 경제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교통투자: 현재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도 런던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교통인프라인 크로스레일(Crossrail)과 노후화된 지하철의 재단장(Upgrade)에 지속적으로 투자함. 특히 노후화된 신호체계로 인해 지하철의 혼잡과 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호체계의 현대화에 주력할 계획임.
- 치안과 범죄: 국가적 차원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최대한 많은 경찰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거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인원을 더 이상 감축하지 않고 3만 2000명 수준의 경찰력을 유지할 방침임. 市는 무기회수 프로그램(Operation Blunt 2)을 통해 1만 1000개의 범죄용 칼을 수거하고 청소년의 범죄발생률을 15%, 강도사건을 17%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방재: 런던 비상화재방재위원회는 지난 4년간 화재 관련 안전진단 방문횟수를 80% 이상 높이고 방화범죄를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둠. 앞으로도 市는 소방관을 더 이상 감축하지 않고 방재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런던개발청과 주택커뮤니티청 통합: 市는 런던개발청과 주택커뮤니티청의 성공적인 통합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서민주택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특히 시장(市長) 임기 동안 5만 세대의 서민주택 공급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 동시에 주택 조성과 관련된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올림픽: 2012년 열리는 런던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함. 동시에 올림픽 개최지 조성 및 재생 과정에서 1만 세대의 새로운 주택과 1만 개의 영구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
- 경제성장: 현재의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런던의 경기회복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국가 차원의 예산 삭감이 미래에도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市는 범죄예방, 교통투자,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경제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임.

([www.london.gov.uk/who-runs-london/mayor/boris-johnson/boris-johnsons-speech-london-assembly-wed-25-january](http://www.london.gov.uk/who-runs-london/mayor/boris-johnson/boris-johnsons-speech-london-assembly-wed-25-january))

#### 4. 파리市 / 베르트랑 들라노에 시장

- 파리市의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11만 명 이상 늘었고, 연령대도 점차 젊어지고 있음. 2012년 시정은 신뢰, 명철함, 정책 수행의 확고함이라는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주택, 고용, 환경 분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계획임.

- 주택 분야: 주택 분야에 국가의 지원이 점점 줄어들어 따라 市 예산

의 40%를 이 분야에 투입할 계획임.

-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임. 주택 부지 공급을 위해 국유지인 12區 Reuilly 소방서 부지를 매각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15區에 국방부 청사를 설립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크라-니베르에 500세대의 주택을 신축하지 않으면 이 계획에 반대할 계획임.
  - 2012년 중에 600세대의 학생 주택을 신축하고, 민간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을 위해 900유로(약 130만 원)의 주택보조금을 책정할 것을 시의회에 제안할 예정임.
  - 한부모 가정을 위해 주택 보조금을 늘리고 12區에 이민 노동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2012년 중에 설립할 예정임.
  - 레지옹(Région), 道, 대규모 코뮌 간 협력체계를 포함하는 메트로폴(Métropole) 차원의 사회주택 관련 기관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시장(市長)과 메트로폴 의원, 자치단체장이 이 기관을 만들기 위한 입법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임. 입법 프로젝트 추진결과는 하원에서 2012년 9월 발표될 예정임.
  - 2000개소의 구급 숙소를 만들겠다는 시정목표의 연장선상에서 2012년에는 의료구급대가 메트로폴 차원에서 거듭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고용 분야: 현재 市 전체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음. 2010년 1/3분기부터 2011년 1/3분기까지 일자리가 약 2만 개 늘어났음. 현재 市 실업률은 국가 전체 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임.
- 2012년에는 3, 11, 18區에 하나씩 총 3개의 기업양성소를 열고 15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유치할 예정임. 주로 디지털 아트와 생

태 혁신 분야의 창업기업을 수용할 계획임.

- 市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고용을 줄이지 않고 안전, 방재 관련 분야의 근로조건을 향상할 계획임.
-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형태로 재활용가게를 설치할 계획임. 에마우스 데피(Emmaüs Déf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8區의 리계 시장에 설치될 재활용가게는 1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교통분야: 2012년에는 市가 2억 유로(약 2970억 원)를 투자한 지하철 14호선 공사를 더욱 진척시킬 계획임. 또한 2011년 가을부터 시작된 오토리브 프로그램(공용 전기자동차 대여서비스)을 확대할 예정임.

- 환경 분야: 2008년 발표되었으나 재정난으로 연기된 18區 파졸 협의 정비지구의 광전지센터 프로젝트를 2012년 중에 완료할 계획임. 이 광전지센터에는 3500m<sup>2</sup>의 광전지판이 설치됨. 또한 2012년에는 100개의 학교에 단열재를 설치할 예정임.

- 문화 분야: 2013년 초 파졸 지구에 약 3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임.

- 기타: 현행 벌금액수가 35유로(약 5만 원)에 지나지 않아 2012년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이 벌금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

([www.paris.fr/accueil/actualites-municipales/2012-les-voeux-du-maire-de-paris/rub\\_9656\\_actu\\_110210\\_port\\_23785](http://www.paris.fr/accueil/actualites-municipales/2012-les-voeux-du-maire-de-paris/rub_9656_actu_110210_port_23785))

([www.youtube.com/watch?v=V9\\_qucprL-c](http://www.youtube.com/watch?v=V9_qucprL-c))

## 5. 베를린市 /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시장

- 신(新) 국제공항 개항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현재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착실히 지속시키며, 베를린 도시건설 775주년을 맞아 베를린市的 개방과 자유, 사회통합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 2012년 6월 3일 새로운 베를린 공항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국제공항이 문을 엮. 장거리의 국제선 노선이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베를린으로 연결됨으로써 베를린市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됨. 이를 바탕으로 2012년을 특별한 경기호황의 해로 만들 계획임.
  - 국제 금융시장의 혼돈으로 인해 시민들의 우려가 많지만, 베를린市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무엇보다 관광 분야에서 기록갱신이 계속되고, 사회보장이 되는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것은 市가 국내 외적으로 매력적인 도시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임.
  - 베를린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보다 개방적이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 흥미로운 문화프로그램, 뛰어난 교육기관과 교육 혜택, 혁신적 기업의 집중에서 유래함. 2012년에도 이러한 강점을 확대하고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발전을 착실히 지속해나갈 것임.
- 베를린市的 미래는 베를린에서 일하거나 살기 위해 온 모든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짐. 따라서 市의 과제는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과 관용이 필요함.
  - 市는 2012년 베를린 도시건설 775주년을 맞아 개방과 관용의 이

미지에 중점을 둔 행사를 많이 열 계획임. 특히 다민족, 다문화 유입의 역사에 관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함. 이와 함께 인종차별과 극우주의적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나치당의 활동 금지를 위해 재차 노력할 것임.

- 현재의 성장 이면에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주택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특히 도심의 집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市는 무엇보다 집값 안정에 주력할 것임. 새로운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사회적으로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육아 등 가정생활과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가족우호정책을 펴며, 노인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할 계획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1230.1040.364407.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1230.1040.364407.html))

## 6. 도쿄都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지사

○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국제정세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적 상황에서 도쿄都는 2011년 말 새로 수립한 비전계획인 ‘2020년의 도쿄’를 나침반으로 삼아 도쿄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고도의 방재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목조주택 밀집지역의 불연화(不燃化)나 건물의 내진화(耐震化)를 추진하고, 이웃끼리 서로 돕는 방재 근린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임.

-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도 100만kW급 천연가스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도쿄산(産) 고효율·저탄소 전력을 생산할 예정임.
- 위기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젊은이를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학을 지원하고 교육부문의 혁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일본의 국력을 좌우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 인증 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대처할 예정임. 또한 노인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 평생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임.
-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 대해 안전을 확보해가면서 복구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임. 또한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유치를 통해 지진재해를 극복한 일본의 부활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www.koho.metro.tokyo.jp/koho/2012/01/aisatsu.htm](http://www.koho.metro.tokyo.jp/koho/2012/01/aisatsu.htm))

## 7. 상하이市 / 한똥(韓正) 시장

- 도시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발전을 위해 2012년에는 23개 중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중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립: 국제금융센터 건립은 위안화의 국제화와 함께 금융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목표임. 금융서비스 개선과 금융의 대외개방을 가속해 거래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함.
  - 상하이 국제항운센터 건립: 현대적인 서비스체계와 종합시스템을 구축함.

-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강화: 상하이 국제무역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역 관련 기관을 집적해 우수한 무역환경을 조성함.
- 전략적인 신흥산업 육성: 유망 제조업을 육성하고 낙후된 산업을 도태시킴.
- 서비스업 개혁: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 제도 개혁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서비스업을 개혁해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함.
- 소통 강화: 개인 및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소통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섬.
- 과학기술 발전: 창장강(長江, 양쯔강) 국가혁신단지를 돌파구로 삼아 과학기술 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해 국가의 혁신 역량을 제고함.
- 도·농간 상생: 도시·농촌 간 유기적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핵심 발전지역 및 주변 신도시를 개발함.
- 도시행정의 과학화: 전반적인 치안수준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도시행정 발전방안 및 도시계획을 수립해 도시행정의 과학화를 추진함.
-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탈바꿈: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함.
- ‘지혜도시’ 조성: 정보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기초 설비를 정비하고 정보화 수준을 제고함.
- 공공 문화서비스 개혁: 공공 문화서비스 시스템을 혁신하고 강화함.

- 푸둥 지역 혁신: 금융 중심지인 푸둥(浦东) 지역의 종합적인 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함.
- 기업 개혁: 시영(市營) 기업의 개혁을 단행하고 중소기업 서비스 시스템을 정비하며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함.
- 주변 농촌 개혁: 상하이 주변 농촌 개혁을 통해 농업의 현대화와 농민의 수입 증대를 모색함.
- 물가 안정: 식품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물가를 안정시킴.
- ‘4위 1체’ 시스템을 통한 주택 보급 안정화: 재개발 및 대형 주택단지 건설을 촉진함.
- 취업 촉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취업촉진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을 정비해 사회 전 계층의 소득수준을 제고함.
- 교육 개혁: 중장기 교육 개혁 및 발전 계획을 시행하고, 중국 교육시스템 개혁 시범지역을 운영함.
- 공공위생 제고: 병원의 선진화 및 공공위생시스템, 의약위생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함.
- 민원서비스 개선: 지역사회 건설 및 민원서비스 개선에 힘씀.
- 체육 분야 강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체육시설 및 관련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고 체육 분야에서 두



각을 나타내고자 함.

- 도시정부 혁신: 도시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도시정부의 혁신을 도모함.

(<http://shzw.eastday.com/shzw/G/20120206/userobject1ai71348.html>)